

청소년부모의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10대에 첫 자녀를 임신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Exploratory study on developing a support policy for adolescent parents:
focusing on single mothers who become pregnant for the first time as teenage years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영호**
부산대학교 저출산문제센터
센터장 박지윤***

The Seoul Metropolitan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Center
President Lee, young ho
Research Center of Fertility Low
Director Park, ji yo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초록〉

지금까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들의 대다수는 미혼 한부모가족의 형성사유를 구분하지 않아, 청소년한부모를 특정하여 직접 자료조사를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부모의 임신, 출산, 양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청소년부모의 양육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통해 얻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동일한 문제를 내포한 1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에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임신에서 양육 초기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자녀 양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넷째, 자립의 가능성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 양육초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직접 조사를 통해 탐색한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고 있으며, 비양육자인 자녀의 생부의 역동을 함께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저출산의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의 과제에서 청소년 산모의 건강권을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개인, 사회가 함께 고민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 생부에 관한 사회의 무관심을 환기시키고 아이 생부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부모와 미혼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10대의 청소년으로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부모, 한부모들에 대해서는 가정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도입과 10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 및 양육프로그램이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포괄하는 가족정책의 수립과 가족자원과 지역자원을 적용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후속 연구들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저출산,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본 논문은 2020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주저자 : 이영호(woolee62@hanmail.net)

***교신저자 : 박지윤(jiyoon0215@daum.net)

〈Abstract〉

Despite the diverse system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itiatives that have been created to improve the environments of child birth and nurturing, the birth rate in Korean society remains low. Some minor teenage single parents give birth and raise children. Teenage single parents are supported by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but some of their needs are still not being addressed. As each single parent has different background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 investigation is required for developing differentiated support in which they will be considered both parents and children.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unique problems encountered by teenage parents, focuses on single mothers giving birth, and explores measures that teenage parents can use to be independent members of civil society. Three suggestions are presented for the period from pregnancy and childbearing to parenting. First, there should be an education support plan that will enable them to finish tertiary education, and parent education. Second, measures should be created to initiate a change in direction in indifferent biological(real) fathers: these should enlighten and help them participate in rearing their children. Third, in addition to improvements of the current systems only targeting single parent-family support, which will help differentiate teenage parent support from adolescent single parent-family support, assistance should be given for teenage single parents to grow as a Subject of Rights through tailored independent support programs.

Key Words : low birth rate, adolescent parents, a single teenage parent, single family support system

I. 서론

통계청(2019)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2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출산한 신생아는 14,613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4.5%이고 19세 이하의 엄마에게서 출생한 아이는 1,300명으로 0.4%이다. 이는 전체 출생아 수에서 보면 소수지만 매년 10대에 부모가 되어서 양육을 선택하는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들이 10대 초 중반인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¹⁾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부모들이 존재하고, 또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도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의 이면에는 양육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애초에 양육이 어려워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들이 출산한 자녀는 요보호아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요보호아동은 4,047명이었으며 이들 중 미혼부모 및 혼외자의 자녀가 464명(보건복지부, 2020b)²⁾이며, 2019년 입양아동은 국내입양이 387명, 국외입양이 317명으로 704명³⁾이

다. 이중 국외입양은 100% 미혼모의 아동으로 이에 대하여 “아동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책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베이비뉴스, 2020).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⁴⁾에 의하면 2019년 발생한 아동학대는 3만45건이며, 이 중 사망한 피해아동은 42명으로 이는 한 달에 3~4명씩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체 학대아동의 연령으로 볼 때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만 13세~만 15세인데 비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45.2%가 만1세 미만이며, 만3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는 75.6%가 부모이며 20대가 47.2%로 연령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사위크(2020)의 조사에 의하면 사망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1세 이하 피해 아동 중 5명은 출산 직후 친모에 의해 사망하였으며, 모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10대와 20대이며 또한 방임에 의한 사망 사건 8명 중 7명이 만1세 이하였으며 가해자 연령도 동일한 10대와 20대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및 법제·개정을 통한 제도 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부모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 저출생의 문제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

1) 「민법」 807조(혼인적령)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어야 혼인을 할 수 있으며, 「민법」 812조(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혼인신고는 「민법」 812조(혼인신고의 심사)에 의해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810조 및 제812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만 18세 이하의 경우는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2020b) 보호대상 아동현황보고 보호조치아동의 발생원인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e-나라지표 2020년 11월20일 확인)

3) 보건복지부(2020c) 보호대상 아동현황보고, 입양아 수 및 입양비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 (e-나라지표 2020년 11월20일 확인)

4) 보건복지부(2020a),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임신하고, 출산하여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였으나 나이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소년한부모가 되어야 지원을 신청하게 되는 과정의 사례를 현장에서 보게 된다(이영호, 2020). 이처럼 청소년한부모가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청소년부모⁵⁾로 하여금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자 했던 그들의 의사결정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게 하는 현실을 사회가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을 지원하는 관련법은 많지만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된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그 유형이 다양하다. 혼인을 한 후에 한부모가족이 되는 원인이 사망이면 사별 한부모, 이혼에 기인한 경우 이혼 한부모, 장기입원이나 장기구속, 유기, 가출 등에 의한 유배우 한부모가 있으며, 혼인하지 않았거나, 혼인하였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미혼 한부모 등이 있다. 여기에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서 모자 가족, 부자 가족 그리고 조손 가족으로 구별된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경우를, 청소년 한부모로 대상화하여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⁶⁾

현재 우리나라는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10대에 임신하고 출산하여 모 또는 부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24세 이하의 경우는 청소년한부모지원을 통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책과 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미혼일 경우는 미혼모·부지원기관을 통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10대의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부부는 현행 지원법이 전무하여 학업중단, 주거문제, 임신, 출산, 양육 등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곤란에 처하게 되고 이는 자녀의 적절한 양육의 부족이므로 저출생에 기여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10대의 청소년한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어린 나이에 자녀양육을 수행해야 하는 동일한 어려움에 대해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실혼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한부모가족의 형성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한부모 전체로 연구를 한 것이 대다수이다. 청소년한부모를 특정하여 직접 자료조사를 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의 가능성을 열고 구체화하기 위해 청소년 부모의 양육과 관련한 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부모의 임신, 출산, 양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얻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동일한 문제를 내포한 1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에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임신에서 양육 초기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자녀 양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넷째, 자립의 가능성은 어떠한가’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부모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의와 정확한 실태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를 보면 30대 이하가 29%, 40대가 54.5%, 50대 이상이 16.5%로 평균나이가 43.1세라고 발표하고 있어 연령의 분류를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10대에 임신, 출산경험이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알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서 청소년부모를 대변할 수 있도록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10대 부모, 청소년한부모,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모두 포괄하여 살펴보았다.

5)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없지만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 중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 번호 제2103018호에는 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5항을 신설하면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YOROW8Y1K8V1Q3S5L4M5E2Z3Y9Z4)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최연숙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 번호 제2104031호의 개정법률안에서도 제2조(정의) 5항을 신설하면서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의 청소년인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D0Y0H9Z1D8D1E3D4G3B4P8J8F4V2)

6)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장제4조, 제2장제17조의2,4,5에서 청소년한부모의 정의와 교육지원, 자립지원, 그리고 건강진단 지원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7)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는 2012년 학술대회에서 한부모가족을 중심대상으로 주제를 설정한 이후 꾸준한 연구가 지속되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부모가족대상의 연구, 발표는 30편(강기정·박수선(2013), 고선강(2014), 고선강(2015), 고선강(2018), 고선강·구혜령(2012), 김명희·변규란(2012), 김상훈 외(2010), 김성연(2015), 김소영·정지영(2012), 김의숙·박은정(2018), 노정자·강기정(2012), 박단비(2016), 박수선·강기정·손서희(2012), 박정윤·원아름(2014), 박주희(2016), 서지원(2013), 서지원·차성란(2012), 안경천·이영호·박단비(2017), 윤소영(2013), 윤소영·이현아(2012), 이복실(2012), 이영호(2012), 이영호(2014), 이영호(2015), 이영호·김성연·이예슬(2020), 이영호·장명선(2019), 이윤정(2019), 장명선·이영호(2016), 장명선·이창순(2012))에 가까이 연구·발표되고 있다. 청소년한부모에 관한 연구는 이윤정의 연구(2019)가 있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과 학력을 살펴보면 심영란(2002)은 미혼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55.5%가 10대 미혼모로서 16세~20세의 연령에 속하며, 고졸이상이 43.4%, 고등학교 중퇴는 27.6%라고 하였다. 上田 美香(2014)는 아동학대와 양육이 불안한 한부모 가정의 증가, 출산연령의 저연령화에 따른 10대 부모의 출산, 양육과 관련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5.1세이고, 출산당시의 연령은 15세가 5명, 16세가 8명, 17세가 13명, 18세가 31명, 19세 이상이 44명이라고 하였다. 학력은 중졸이 49명, 고졸은 41명으로 중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현, 권미경과 최윤정(2018)은 영아, 유아, 초등자녀를 재가에서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참여한 미혼모 가운데 청소년 미혼모는 전체의 15.7%였으며, 임신 당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8.2%로 가장 많았으나 중학교 중퇴나 고등학교중퇴도 10%로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58.2%라고 하였다. 청소년부모의 실태를 조사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2019)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운데 62.2%가 10대에 임신하여 18세 임신의 비율이 27.6%로 가장 높았고 19세가 24.5%, 17세가 21.9%, 16세는 18.9%, 15세가 5.1%, 14세가 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32%가 고등학교 중퇴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중단의 이유에 대하여 35%가 '학교부적응'이라 답변하였으며, 33%는 '임신 사실로 인해 학교에 다니기 어려웠다'라고 하였고 '출산이후 학업 지속이 어려웠다'라는 대답도 10.7%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소득과 취업, 생활비, 주거환경 등을 살펴보면 김지현 외(2018)의 연구에서는 임신 당시 58.2%가 취업 중이었으나 그중 81.7%가 임신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였다고 한다. 소득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35.3%, 정부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율이 8.7%, 부모 친척으로부터 받는 용돈의 경우가 9%로 나타났다. 월 지출 가운데 대부분이 생활비로 쓰이고 그 다음 지출항목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생활비는 107.6만원이다. 응답자의 66.3%는 채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채무 사유도 역시 절반이 넘는 55.3%가 생활비라고 하였다. 취업 및 자립경험에 대하여 응답자의 61%가 기초생활수급보장자로 전체의 86.0%가 경제적으로 전혀 안정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며, 응답자 전체의 51%가 취업교육 경험이 있었고, 교육목적은 자격증 취득이 87.6%, 조건부 수급 자격유지가 30.7% 순으로 높았다. 취업 상태의 어려움으로 자녀양육 시간부족(48.6%), 구직 중의 어려움은 자녀 돌봄으로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40.0%), 학업상태의 어려움은 육체적 어려움(4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201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61%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고 시간제 근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15.6%, 종일 근로를 하는 경우는 1.3%

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싶어서가 32.6%로 가장 많았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30.6%, 마땅한 일을 구하지 못해서가 16.6%, 학업 중이어서가 14.5%의 순서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은 50만원이상~100만원이하가 27%로 가장 많았고 50만원이하도 26%, 100만원에서 150만원이하가 16.2%, 150만원에서 200만원이하는 14.6%였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37%는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는 등 금융부채가 있는 실정으로 부채가 있는 경우 중에서 자녀양육비 및 생계비가 41%, 주거비 마련이 36.2%였다. 청소년부모의 대부분은 불안정한 주거상태로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살고 있는 경우는 44.4%, 가족 및 친척 거주지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15.2%, 보증금 없는 월세가 6.7%였으며 모텔이나 찜질방에서 자내는 경우도 6.3%였다. 上田 美香(2014)는 10대 부모가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가 3살까지의 기간의 고용형태는 90%정도가 비정규직이며, 총 두 군데 이상의 이동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심영란(2002)은 임신이전에 동거상태는 44.3%가 부모나 형제와 함께 살았다고 하였고 60.0%가 가출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다.

임신 인지 시기 및 출산, 건강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신정희(2011)는 2004년 1월에서 2009년 7월까지 병원에 입원한 19세 이하의 청소년 임신의 산부 27명과 신생아 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명의 산부는 모두 미혼이었으며, 임신으로 적절한 산전검사를 받은 산부는 3명뿐이었으며, 특히 11명의 산부는 산전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신생아 28명 중 미숙아는 17명이었으며 입원 중 1명이 사망, 퇴원한 신생아 17명 가운데 14명이 입양되었거나 아동보호 시설에 위탁되었고 친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는 12명이었다고 하며 산전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지현 외(2018)는 임신 출산기의 경험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컸으며, 양육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문제로 73.6%가 응답하였다. 혼자서 양육을 하게 된 사유는 아기 아빠의 책임회피 및 만남 회피가 46.3%로 나타났다. 임신기에 의료시설을 이용하기에 비용부담이 컸고 28.3%는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임신 13주까지 66.6%가 병원을 찾았으며, 출산 전에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은 경우도 4%에 달하였다. 14주 이후에 병원을 찾은 34%의 산모들은 늦은 병원 방문 이유에 대해서 병원비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미성년미혼모의 건강과 양육지원에 관하여 연구한 변수정(2020)에 따르면 이들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는 시기는 평균 9.7주이고 미성년미혼모의 초진 시기는 평균 12.7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성인미혼모의 초진시기 평균인 10.4주보다 늦고 유배우 여성의 초진 시기는 5.4주와는 차이가 매우 크다. 초진 시기는 재생산건강(reproductive health)의 주요지표이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빨리 지각하고 초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산전 진찰의 경우, 10.4%가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성년미혼모는 10.3%, 성인

미혼모는 12.1%로 20대에서 진찰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이유는 미성년미혼모의 경우 비용이 부담되어서 35.7%, 임신사실을 몰라서 28.6%, 산전 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7.1%, 병원에서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 질까봐 7.1%로 나타났다. 또한 미성년미혼모는 산후 우울감 경험률이 89.7%로 성인미혼모 79.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부모의 양육특성, 양육의 어려움, 양육 지원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혜영 외(2010)는 미혼모자 시설을 퇴소하거나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이용자인 재가양육미혼모들을 대상으로 미혼모들이 자녀양육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심층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양육비, 교육비 등의 비용부담(63.1%)이 가장 많았고 양육시간의 부족(16.4%), 자녀의 훈육지도(9.1%)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가져왔다고 한다. 즉 미혼모의 연령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비취업 미혼모와 재가미혼모일수록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현 외(2018)는 임신 출산기의 경험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컸으며, 양육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문제로 73.6%가 응답하였다. 혼자서 양육을 하게 된 사유는 아기 아빠의 책임회피 및 만남 회피가 46.3%로 나타났으며 자녀 돌봄에 있어서 영유아의 경우, 32.5%가 기관을 이용하고 대부분 집에서 본인들이 돌보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2019)의 연구에서는 자녀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38.5%, 진로 및 취업 등 사회복귀의 어려움이 20.5%, 자녀보육 및 의료서비스 문제가 12.3%, 주거 불안정이 11.9%, 산전후 관리 및 자녀 양육법을 모름이 7.9%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와 논의하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배우자가 26.7%, 가족 및 친척이 25.7%, 그 다음이 친구로 18.1%였다. 한편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4.6%나 되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의 습득에 대한 경로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54.3%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고 응답하였으며 원가족이라 답한 경우는 11.4%,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복지기관으로부터 얻는다는 경우는 1.3%로 나타났다.

김은지 외(2011)의 연구에서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 조사대상자의 94.4%가 미혼이라고 응답하여 청소년한부모의 대다수는 미혼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생계비·양육비 등의 현금지원,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지원, 의료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영호(2014)는 미혼한부모는 사회로부터 인식되는 부정적인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고, 기존의 생활터전과는 전혀

무관한 환경과, 물리적 정서적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보와 지원이 부족하고 또한 불균형한 경우가 많아서 미혼한부모 지원은 단편적인 서비스가 아닌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부족한 영역을 채우면서 생활의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erthoud & Robson(2001)는 European and Community Household panel을 이용하여 첫아이 출산이 10대와 20대인 유럽 13개국의 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여성의 출산연령과 사회경제적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10대의 임신·출산은 '원하지 않는 임신', '막아야 하는 임신', '고위험군 임신' 등으로 표현되어 조산 등의 비율이 높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많은 경우 10대의 신체적 원인보다 임신에 대한 관리 및 지식의 부족, 아이 아빠 및 원가족과의 관계 등 외부적 환경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10대에 출산하여 양육하는 엄마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한 森田 明美(2014)에 따르면 10대 양육모는 임신 전 또는 임신을 계기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결과 직업선택의 폭이 좁고, 비정규직이 많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둘째의 임신, 이혼, 재혼 등 가족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 이벤트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고 있으며 임신, 양육의 지식의 부족으로 미숙한 양육과 대응으로 부적절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등의 행정절차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예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과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회복하려는 노력보다 관계를 단절하려는 경향이 있고 학교를 비롯한 생활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어차피 알아주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등 회피하려는 경향과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심영란(2002)은 미혼모가 당면하는 문제 가운데 아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84.3%가 입양하기를 원했고 입양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경제적인 문제로 55.7%가 응답하였다. 上田 美香(2014)는 10대 양육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친정엄마의 도움이 약 70%인데 비해 아이의 아빠 쪽의 도움은 약 40%였고, 현재 동거가족이 없이 아이와 둘만 살고 있는 경우는 25.6%였다. 또한 10대 양육모들의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걱정은 중졸집단에서는 55.1%인 반면 고졸집단에서는 26.8%로 나타났고, 자기공정에 대한 질문에서도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중졸집단에서 8.3%인 반면 고졸집단에서는 20.5%로 나타나 10대 양육모의 지원과제로 학력 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국내외 청소년부모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지원

청소년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현재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중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것은 2010년 부터이다. 일반 저소득한부모가 지원을 받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것에 비해 청소년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기준에 차이를 두고 청소년한부모에게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현재는 저소득 한부모의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에서 20만원의 지원을 받는데 비해 청소년한부모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경우에 양육비를 월 35만원을 지원받고 있어서 청소년한부모의 지원은 차별화되어 있다. 2020년 현재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한부모가 미혼인 경우라면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미혼모·부자지원기관의 사업은 2009년에 시작되었다. 사업의 추진배경은 첫째 미혼모부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출산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과 둘째, 임신한 미혼여성 등이 상담 및 양육교육, 미혼모시설입소, 정부지원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기능이 미약하므로 초기 위기 발생 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종합적인 상담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여성가족부, 2020).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기관은 2009년에 전국 6개소로 시작하여 2020년 현재 전국에 17개소

가 있다. 사업목적은 미혼모·부가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원 기관을 통해 미혼모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제공, 자녀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대상은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상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이다. 미혼모·부자지원기관의 사업은 출산 및 양육지원과 친자 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운영지원, 자조모임운영지원, 지역 유관 기관 연계지원이 있다. 미혼모·부자지원기관의 핵심 사업은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가구로 청소년미혼모·부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데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 예방 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와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양육용품의비용을 지원한다. 여기서 시설입소자란 <표 2>에 제시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한부모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장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를 표로 정리한 것으로 청소년부모가 임신을 하였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중 기본생활 시설이다. 임신에서 출산하여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곳에서 퇴소를 하면 자녀가 3세가 되기 전까지 미혼모자복지시설의 공동생활시설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생활 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이후는 모·부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표 1>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만18세미만자녀 월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이하 자녀, 월5만원 - 학용품비: 중고생 자녀 연 5.41만원 - 생활보조금: 시설입소가구, 월5만원	소득인정액 가구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자치단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월35만원(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기관 운영: 미혼모부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위한 초기지원, 교육 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친자검사비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소득인정액 가구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24세 이하 한부모 미혼모·부가족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17개지원기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시설기능보강,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 시설입소자 상담의료지원/ 시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택)주거지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지원 / 시설배치 - 사회복지요원 인력경비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관련 시설, 단체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구조	- 한부모가족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 2제2항 한부모가족	대한법률 구조공단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1쪽

〈표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

시설 유형	입소대상	기간 (연장)
모 부자 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족	3년
	자립생활지원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족 -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세대 우선 입소	(2년)
	공동생활지원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족으로서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뤄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자	2년 (1년)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6개월미만)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입소 여성, 소득기준 초과자(정원의 10% 범위 내), 가정폭력피해여성 가능	1년 (6개월)
	공동생활지원 - 3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 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년 (1년)
미혼모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년 (6개월)
일시지원 복지시설	-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母的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개월 (6개월)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9쪽 요약구성

해외의 청소년부모지원에 대하여 미국,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순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내용은 허민숙(2020)을 참고하였다. 미국은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에 관한 법률(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10대 임신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10대 부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10대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지역서비스기관,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으로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청소년부모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거나 교육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보인다. 영국은 『건강 및 사회돌봄법(Health and Social Care Act)』 및 관련 규정(Health and Social Care Act Regulations 2014)에 의거하여 영국국가보건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가족간호사 파트너십(Family Nurse Partnership:FNP)을 통해 처음 출산한 취약 계층의 청소년 산모(주로19세이하)와 청소년부(父)에게 그들의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일 대 일로 간호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담당관(Education Support Officer for Teenage Pregnancy)은 10대 부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뉴질랜드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64)』 제164-169조에서 ‘청소년 부모급여’에 관해 규정하고 청소년미혼모, 청소년미혼부, 그리고 법률혼, 시민결합(civil union)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모든 청소년부모, 청소년 부부에게 ‘청소년 부모급여(Young Parent Payment)’를 주단위로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고, 일대일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자립능력을 마련해 주고 있다. 아일랜드는 『아동 및 가족지원법(The Child ald

Family Agency Act 2013)』에 의해 20세 미만 부모의 임신에서부터 그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부모 및 그 가족에게 10대부모 지원프로그램(Teen Parents Support Program)을 제공한다. 2018년 기준으로 제공된 지원프로그램에는 건강, 정서 지원, 부모교육, 관계개선, 주거지원, 교육지원, 법률지원, 직업 훈련, 자녀돌봄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국가에서는 경제적 지원정책을 한부모이기 때문에 지원하기보다는 한부모 가족이 일정 소득이하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지원을 하며(신윤정·이상림·김윤희, 2013), 한부모를 지원이 필요한 대상 중 특정 집단으로 차별화하지 않으며, 가족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에서는 미혼모·부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정책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김지현 외, 2018:68).

해외사례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가 10대, 청소년의 출산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근거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차이이다. 지원을 함에 있어서 청소년부모 또는 10대 부모, 미혼모, 한부모라고 대상을 구분하거나 한정하지 않고 지원서비스의 콘텐츠인 의료보호, 건강 및 사회돌봄법, 사회보장법, 아동 및 가족지원법 등 큰 범주 속에서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원기간과 지원의 내용이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교육과 자립을 위주로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지만 10대의 출산에 대응하는 지원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지만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의 근거 조항이 없으며, 다만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

가의 복지급여지원을 제외하면 민간 또는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내용은 프로그램 형식으로 기관마다 다르게 펼쳐지고 있으며, 그 또한 매해 사업의 변경에 따라 프로그램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복지 지원이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서비스지원에서 사각지대를 내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부모와 그의 자녀인 아동이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정책의 개발이 법령 정비에서부터 시작되어 서비스가 정교화 되어야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부모의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정책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청소년부모이나 실제로 청소년부모의 접근성의 한계로 동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10대에 첫 자녀를 임신, 출산하여 조사시점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초기양육에서 ‘초기’란 출산하여 자녀가 3세가 되는 시기까지를 초기로 조작정의 하였다. 연구의 과정으로 조사대상자의 추출은 1차적으로 미혼모 당사자단체와 한부모가족지원기관으로부터 해당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2차적으로 그들을 통하여 스노우볼링으로 해당자를 추가 선정하였다.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응답자의 동의하에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내고 받는 형식으로 조사하였으며 필요시 동의하에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5년 2월에서 2015년 5월의 기간에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질문내용은 연구목적에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구성하였다. 첫째, 청소년부모의 기본적인 특성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 학력, 직업, 생활 장소, 함께 생활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였고 둘째, 임신에서 양육초기의 생활환

경의 실태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자녀가 3세인 시점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처음 임신을 인지한 시기, 출산 당시의 본인과 상대의 연령, 출산 당시 누가 옆에 있었는지, 출산 후의 3세가 되는 시기까지의 생활장소, 함께 생활한 사람, 양육 외의 생활에서 어려운 점과 본인의 의지처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자녀 양육의 실태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이용경험, 양육과 관련한 자녀의 행동과 응답자 본인의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넷째, 자립의 가능성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립과 관련한 직업교육여부 및 취업을 위한 추가적인 학업 의지, 교육 시 필요한 지원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02건이다.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기본적인 실태를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부모의 기본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응답자의 기본적인 특성은 조사시점에서의 본인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표 3〉), 최종학력과 중퇴경험, 중퇴경험이 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중퇴하였는지(〈표 4〉), 그리고 직업(〈표 5〉) 원가족의 수급여부, 현재 동거하는 가족, 현재까지 이용한 시설(〈표 6〉)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연령을 적도록 한 후, 연구자가 집단화하여 제시하였다. 평균연령은 23.56세이며 연령분포는 10세의 경우가 1명, 41세인 경우도 1명이 있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로 전체의 6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대로 22.6%, 30대가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3가 20대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은 0세에서 20세까지 분포하였고 3세 이하가 40.2%, 4세~6세까지가 28.4%, 7세~9세가 14.7%, 10세~12세가 7.9%, 13세~19세가 4.9%, 20세 이상이 1%로 나타났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5.12세로 계산되었다.

〈표 3〉 응답자와 자녀의 연령

분항	구분	빈도	퍼센트	분항	구분	빈도	퍼센트
본인 연령	10세~14세	1	1.0	자녀 연령	3세이하	41	40.2
	15세~19세	22	21.5		4세~6세	29	28.4
	20세~24세	56	54.9		7세~9세	15	14.7
	25세~29세	12	11.8		10세~12세	8	7.9
	30세~34세	7	6.9		13세~19세	5	4.9
	35세이상	1	1.0		20세이상	1	1.0
	무응답	3	2.9		무응답	3	2.9
계		102	100	계		102	100

〈표 4〉 응답자의 학력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학력	중학교 졸업	50	49.0	중퇴 시기	임신하기 전	25	27.2
	고등학교 졸업	38	37.3		임신인지 후	66	71.7
	전문대학 졸업	3	2.9		출산 후	0	0.0
	대학교 졸업	3	2.9		기타	1	1.1
	기타	8	7.9		계	92	100
중퇴 경험	계	102	100	중퇴 사유	학교의 중퇴요구	27	29.3
	있다 ⁸⁾	92	90.2		부모의 중퇴요구	12	13.0
	없다	9	8.8		임신사실을 숨기기 위해	32	34.8
	무응답	1	1.0		기타(학업부진, 건강등)	22	22.9
	계	102	100		계	92	100

〈표 5〉 응답자의 직업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직업	있다 ⁹⁾	41	40.2	근로 형태	정규직	7	17.1
	없다	59	57.8		비정규직	30	73.2
	무응답	2	2.0		무응답	4	9.7
	계	102	100		계	41	100

〈표 6〉 시설이용경험 및 현재 함께 사는 가족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시설이용 경험	있다	85	83.3	동거가족 여부	있다	88	86.3
	없다	17	16.7		없다	14	13.7
	계	41	100		계	102	100
이용시설 (n=85) (복수응답) ¹⁰⁾	모자복지시설	30	35.3	동거가족 유형 (n=88) (복수응답)	아이생부	1	1.1
	미혼모자기본시설	56	65.9		생부의 가족, 형제자매	1	1.1
	미혼모자공동시설	42	49.4		친정 부모	15	17.0
	일시지원시설	1	1.2		친정 형제자매	3	3.4
	한부모지원기관	16	18.8		기타	77	87.5
계	145	.	계	97	.		

학력은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0%가 중학교 졸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이 37.3%였다. 대학졸업이 2.9%, 전문대학 졸업이 2.9%, 기타 6.9%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가운데 90.2%(92명)가 중퇴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중퇴한 경험이 있는 92명에게 중퇴시기와 중퇴사유를 질문하였다. 중퇴 시기는 71.7%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중퇴를 하였으며, 27.2%는 임신한 것을 인지하기 전이라고 답하였다. 중퇴 사유는 임신사실을 주변에서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가 34.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학교의 권유가 29.3%, 부모의 요구가 13%로 나타났다. 그 외 22.9%는 공부를 따라갈 수 없어서, 몸이 아파서와 같은 기타이유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40.2%(41명)로 나타났고 직업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73.2%가 비정규직이었다.

〈표 6〉은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양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이용시설, 그리고 동거했던 가족에 대한 질문의 결과이다. 먼저 원가족의 경제상태를 수급여부로 질문하였을 때 8.8%만이 수급대상가구라고 응답하였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이후 복지시설을 이용한 경우를 표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83.3%는 이용시설을 경험하였으나 16.7%는 지원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

8) 중퇴한 경험이 있는 92명에게 중퇴시기와 중퇴사유를 질문하였다.

9)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근로형태를 응답토록 하였다.

10) 복수응답의 경우는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85명을 기준으로 하여 문항의 응답유형 각각의 응답자는 총 85명중에서 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모자복지시설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다는 85명 중에서 30명이 그렇다에 응답한 것이므로 35.3%로 계산함. 이후의 복수응답의 백분율 산출방식도 이와 같음.

〈표 7〉 임신사실 인지시기와 출산당시 동거인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임신사실 인지	4주 이내	7	6.9	출산 당시 동거인 (n=102 복수응답*)	아이 생부	23	22.5
	5주~8주	23	22.5		친정 부/모	19	18.6
	9주~12주	31	30.4		친정 형제자매	9	8.8
	13주~16주	31	30.4		아이 생부 부/모	3	2.9
	17주~20주	7	6.8		아이 생부형제자매	0	0.0
	21주~24주	1	1.0		출산시설관계자	59	57.8
	25주 이상	0	0.0		한부모지원기관직원	1	1.0
	생각나지 않음	2	2.0		기타	5	4.9
계	102	100	계	119	.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85명에게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이용시설을 표시해 달라고 한 결과, 이들이 이용한 복지시설은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이 6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으로 49.4%, 모자가족복지시설이 35.3%, 한부모가족지원기관이 18.8%의 순서로 나타났다¹¹⁾. 임신 출산에서부터 시설을 이용하면서 가능한 시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혼모 1명이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4곳까지 가능하다¹²⁾ 마지막으로 본인과 자녀를 제외하고 동거가족이 있다고 한 88명을 대상으로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경우는 87.5%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포함한 기타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친정 부모가 17%, 친정의 형제자매가 3.4%로 나타나 원 가족이 20.4%이고 아이 생부 쪽의 가족과 사는 경우는 2.2%로 나타나 대조적이다.

요약해보면 응답자들은 20대가 가장 많으며 자녀는 대다수

가 초등학교 취학 전이며,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임신을 계기로 중퇴경험이 있으며, 절반 이하가 직업이 있었으나 비정규직이었고 원가족과 생활하는 경우는 1/5 정도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10대 미혼모의 출산과 초기 양육은 정보와 선택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시설이용경험이 83.3%로 시설의존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임신에서 양육초기의 생활환경의 실태는 어떠한가?

임신했을 때와 출산 당시, 그리고 아이가 3세까지 시기의 생활의 실태는 어떠한지, 시간경과동안의 변화는 어떠한지 살펴 보기 위하여 임신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출산할 때 누가 옆에 있었으며(〈표 7〉), 그 때의 연령(〈표 8〉), 그리고 출산직후와 아이3세시기의 생활장소(〈표 9〉)와 도움이 된 사람(〈표 10〉), 아이가 3세시기에 생활의 어려움과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표 11〉)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최초로 임신사실을 알게 된 시기를 몇 주차였는지 적도록 하고 연구자가 계산하여 표로 나열하였다. 그 결과 2주차에 알게 된 경우도 있지만 24주차가 되어야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9주에서 12주 사이가 30.4%, 13주에서 16주도 30.4%로 공동으로 가장 많고, 5주에서 8주도 22.5%로 나타났다. 기억나지 않는 응답자 2명을 제외하고 평균 인지시기를 계산하면 11.29주, 즉 약12주로 나타난다. 변수정(2019)의 연구에서 미성년미혼모가 임신인지를 한 시기인 9.7주보다도 늦은 시기이며 당연히 초진시기도 이보다 늦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유배우 여성의 초진시기인 5.4주와 비교할 때 매우 늦은 시점이다. 출산 당시 함께 했던 사람은 출산시설, 한부모지원기관이라고 답한 경우는 58.8%으로 이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이 친정부모가 18.6%, 친정의 형제자매가 8.8%로 원가족이 함께 한 경우가 27.4%이다. 아이의 생부와 함께 있었던 경우는 22.5%, 아이생부의 부모는 2.9%로 이를 합하면 친가족 가족과 함께 한 경우는 25.4%로 나타났다. 출산 초기에는 친정가족과 아이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장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따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 생활하는 시설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그리고 미혼모가족복지시설과 일시지원복지시설이 있다. 모자가족복지시설은 생계가 어렵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자립의 욕구가 강한 모자가구에게 주거 또는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은 미혼여성의 임신 출산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며,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은 출산 후 미혼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가족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일시지원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앞의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신을 하였을 때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에서 1년(연장시 6개월추가)지원을 받고, 퇴소하여 2차시설인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에서 2년 생활(연장시 6개월 추가)하고 퇴소하여 3차시설인 모자가족기본생활시설로 입소하게 되면 3년(연장시 2년추가)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퇴소하여 자립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모자가족자립생활지원시설에 추가적으로 입소할 수 있다. 이들 생활시설에서의 기간과 무관하게 이용시설인 한부모가족지원기관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의 생부가족이 각각 28명, 26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과 현재는 미혼모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출산당시에는 아이생부가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 당시의 연령은 10세에서 29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10대에 출산한 경우가 87.2%, 20세에서 24세사이가 10.8%이다. 평균연령은 18.56세로 계산되었다. 아이의 생부인 상대의 경우도 15세에서 19세까지의 10대 연령이 34.3%였고 20세에서 29세사이인 20대가 60.8%이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1.32세로 약 22세이다. 양쪽 모두 24세 이하가 미혼모의 경우는 97%, 생부인 경우는 80.4%로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중반에 출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살의 차이가 난다.

이들이 임신, 출산 초기에 생활한 장소는 한부모가족복지시

설이 6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아이 아빠집이 16.6%, 친정, 형제, 친척집에서 지낸 경우를 합하면 13.7%로 나타났다. 출산 초기에는 친정보다 아이생부와 함께 있었던 경우가 더 많았다. 아이가 3세가 되는 시점에 대하여 응답한 사람은 63명이다.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는 역시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이 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임대주택으로 23.8%, 친정이 12.7%, 아이아빠집이 11.1%로 나타났다. 아이연령이 3세인 시점에서는 1차시설인 미혼모기본생활시설에서는 생활이 곤란하므로 2차시설로 이동한 경우가 29명이라고 추측된다. 아이 아빠 집에서 생활하던 17세대가 7세대를 제외하고 아이생부와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족과 독립적으로 SH나 LH등의 임대주택에서 지내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표 8〉 출산당시의 응답자와 아이 생부의 연령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본인 연령	10세 이하	1	1.0	자녀 연령	14세 이하	0	0.0
	11세~14세	0	0.0		15세~19세	35	34.3
	15세~19세	88	86.2		20세~24세	47	46.1
	20세~24세	11	10.8		25세~29세	15	14.7
	25세~29세	2	2.0		30세~34세	3	2.9
	30세 이상	0	0.0		무응답	2	2.0
	계	102	100		계	102	100

〈표 9〉 출산초기와 아이3세시기의 생활장소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출산초기 생활장소	친정	12	11.7	아이3세 생활장소	친정	8	12.7
	아이아빠집	17	16.6		아이아빠집	7	11.1
	임대주택	2	2.0		임대주택	15	23.8
	형제친척집	2	2.0		민간주택	3	4.8
	한부모복지시설	67	65.7		한부모복지시설	29	46.0
	기타	2	0		기타	1	1.6
	계	102	100		계	63	100

〈표 10〉 출산 초기와 아이 3세 시기에 도움이 된 사람(복수응답)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출산초기 도움 (n=102/ 복수응답)	아이 생부	14	13.7	아이3세/ 양육초기 도움 (n=62/ 복수응답)	아이 생부	6	9.6
	친정 부모	22	21.6		친정 부모	15	24.2
	친정형제자매	2	1.9		친정형제자매	1	1.6
	생부의 부친/모친	5	4.9		생부의 부친/모친	1	1.6
	친구	11	10.8		어린이집교사	2	3.3
	이웃	2	2.0		친구	33	53.3
	출산시설관계자	54	52.9		이웃	3	4.8
	한부모지원기관	5	4.9		출산시설관계자	2	3.3
계	115	.	한부모지원기관	8	12.4		
			응답자	71	.		

〈표 11〉 양육초기의 어려움과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복수응답)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어려움 (n=102/ 복수응답)	본인의 성격/양육태도	20	19.6	버팀목 (n=102/ 복수응답)	아이생부	4	3.9
	본인/가족건강악화	6	5.9		친정부모/형제자매	30	29.4
	직장생활에서의 문제	5	4.9		자녀	88	86.3
	무직상태	6	5.9		친구	21	20.6
	생부와 좋지 않은 관계	16	15.8		공무원	0	0.0
	생부가족과 불화	45	44.6		직장동료	0	0.0
	나만의 시간 없음	49	48.0		자녀또래부모	2	2.0
	양육 상담자 없음	7	6.9		자녀선생님	1	1.0
	조력자 없음	25	24.5		이웃	2	2.0
	서툰 가사노동	10	9.8		남자친구	12	11.8
	생활비부족	24	23.5		출산시설관계자	1	1.0
	저축역력 없음	13	12.7		한부모당사자	11	10.8
	생부의 무직	2	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	7.8
	이웃/또래엄마관계	8	7.8		한부모지원기관	4	3.9
	아이동행외출	5	4.9		특별히 없다	2	2.0
	두려운 장래	56	54.9				
계	297	.	계	186	.		

아이가 3세이던 시점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한 직접접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어려웠던 점과 어렵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 준 사람에 대하여 모두 적도록 하였다. 출산초기에 도움이 되어 준 사람에 대한 질문에는 102명이 응답하였다. 이들 가운데 출산 초기에 도움이 된 사람으로 출산시설 관계자가 5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친정가족이 24%, 아이 생부가족이 19%, 친구 11%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이가 3세가 될 즈음에 대한 질문에는 62명이 응답하였다. 이 시기에 도움이 된 사람은 친구라고 응답한 사람이 33명, 53.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친정 가족으로 25.8%, 아이 생부 가족은 11.2%로 나타났다. 출산시설은 3.3%로 큰 차이를 보이고 한부모지원기관이 12.4%로 비율이 증가하였다. 친정인 원가족의 경우 큰 차이 없이 도움을 주고받지만 아이 생부 가족과 도움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아이가 3세가 되면서 친구들과의 교류가 시작되어 절반 이상이 친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는 변화가 있다. 또한, 아이가 어려서 거동이 어려운 시기에 출산시설에 있는 동안은 출산시설이 큰 도움이 되었으나 3세 이후에는 한 부모지원 기관으로 도움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3세까지의 시기에 양육의 어려움을 제외하고 생활에서 느낀 어려운 점과 현재까지의 자신에게 버팀목의 역할을 한 사람을 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먼저 3세까지의 시기 동안에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 3가지를 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102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한 개수는 287개이다. 응답자들의 절반이 넘는 54.9%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고 그다음에 나만의 시간 없음이 48%로 나타나며, 생부 가족과의 불화가 44.6%에 달한다. 또한, 조력자가 없음, 생활비가 부족한 것이 그 뒤를 잇는다. 아이 생부와의 불화도 15.8%가

응답하였다. 한편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양육 태도로 인한 어려움도 7명, 13명으로 적지 않았다. 아이의 생부와의 불화, 그리고 아이 생부의 가족과 관련한 불화를 더하면 59.8%로 장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의 자신에게 버팀목의 역할을 한 사람을 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중복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하였고 102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한 개수는 187개이다.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는 86.3%가 자녀라고 응답하였고, 친정 부모와 형제자매가 29.4%, 그다음이 친구로 20.6%, 한부모지원 시설 등이 12.7%였다. 자녀가 어리지만 살아가는 이유와 힘이 되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친구라고 응답한 경우도 11.8%가 있었으나 아이의 생부가 버팀목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9%에 그쳤다. 어려움과 버팀목을 모두 나열하라고 한 질문에서 어려움을 표시한 항목의 응답은 297건이었고 버팀목은 186건으로 대체로 어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2를 파악하기 위해 양육하는 미혼모의 응답을 통해서 아이의 생부에 초점을 맞춰보면¹³⁾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아이의 생부가 출산 당시에 옆에 있으면서 파트너의 역할

13) 아이생부의 양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7〉, 〈표 9〉, 〈표 10〉, 〈표 11〉에서 내용을 재정리함

문항	응답	비고
아이생부와 함께 있었음	출산 당시 함께 있었음	23 (표 7)
	출산 초기 함께 살았음	17 (표 9)
아이생부가 도움이 됨	양육 초기 함께 살았음	7 (표 9)
	출산 초기	14 (표 10)
양육초기	양육 초기	6 (표 10)
	아이생부와 좋지 않은 관계로 어려움	16 (표 11)
아이생부가 버팀목이 되어 줌	아이생부의 가족과의 불화로 어려움	45 (표 11)
	아이생부가 버팀목이 되어 줌	4 (표 11)

을 한 경우가 23명이었고, 출산 초기에 아이 생부의 집에서 생활한 경우가 17명이었으며, 그리고 양육 초기에 아이 생부의 집에서 생활한 경우는 7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이 보여 진다. 또한 출산초기에 아이생부와 함께 생활을 한 경우는 17명이었고 이시기에 아이생부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14명이었으며, 양육초기에 함께 생활 한 경우는 7명이었고 6명은 아이생부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버팀목이 되어준 경우는 4명이었다. 이를 통하여 점차 아이생부가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양육초기에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 아이생부와 관계가 좋지 않음이 16명, 생부의 가족과 불화로 힘들었다는 경우가 45명인 것으로 미루어 미혼모들은 힘들지만 아이생부와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출산에서부터 양육초기까지 불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지,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응답자들은 힘든 상황일 것을 예측하였음에도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 아이의 생부 측은 본인의 아이를 왜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기존의 연구가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에서 벗어나 향후의 연구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3. 자녀양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1.6%(73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을 경험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고르도록 요청하였다. 결과는 <표 12>에 나타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1순위에서 가장 필요성이 높은 것은 일해야 하기 때문으로 54.8%로 나타났고 그다음 이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 42.5%로 나타났고 1순위에서 3순위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에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거나 아이 양육이 곤란하다는 순위까지 비슷하게 나타났다. 혼자 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 한 부모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집이나 아이의 보육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어린이 집을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에 대하여 1순위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57.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나의 시간

<표 12> 어린이집의 이용 경험

분항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어린이집 이용하는 이유	일을 시작해야 함	40	54.8	16	21.9	8	15.4	63
	아이를 돌볼 사람 없음	·	·	30	41.1	15	28.8	45
	아이 양육이 곤란함	2	2.7	18	24.7	23	44.2	43
	공부를 해야 함	31	42.5	9	12.3	6	11.5	46
	계	73	100	73	100	52	100	·
어린이집 이용시 좋았던 이유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음	42	57.5	10	13.7	6	9.5	58
	나의 시간이 생김	18	24.7	15	20.6	·	·	33
	양육 관련 조언을 받음	3	4.1	9	12.3	7	11.1	19
	육아에 대한 여유	6	8.2	26	35.6	9	14.3	41
	가벼운 육아상담	·	·	4	5.5	7	11.1	11
	아이의 또래 친구가 생김	3	4.1	3	4.1	19	30.2	25
	아이의 정서적 안정	·	·	5	6.8	4	6.35	9
	아이와 유용한 시간공유	1	1.4	·	·	7	11.1	8
	생활의 리듬이 생김	·	·	1	1.4	4	6.35	5
	계	73	100	73	100	63	100	·
어린이집 이용시 힘들었던 이유	챙겨야 할 준비물이 많음	2	2.7	3	4.8	2	3.5	7
	아이가 아플 때의 대응	8	11.0	7	11.1	13	22.8	28
	보육교사의 주의 받음 a ¹⁴⁾	26	35.6	10	15.8	7	12.3	43
	보육교사의 주의 받음 b ¹⁵⁾	8	11.0	15	23.8	6	10.5	29
	어린 부모·편견을 느낄때	3	4.1	3	4.8	3	5.3	9
	아이가 욕을 배워 옴	1	1.4	3	4.8	1	1.75	5
	까다로운 규칙	12	16.4	11	17.4	11	19.3	34
	휴일에 이용이 안됨	6	8.2	3	4.8	6	10.5	15
	행사가 평일에만 있음	1	1.4	3	4.8	1	1.75	5
	보육시간이 맞지 않음	6	8.2	5	7.9	7	12.3	18
계	73	100	63	100	57	100	·	

이 생겨서 좋다는 것이 24.7%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순위를 합하여 보면 1순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음, 2순위가 육아에 대한 여유감이 생겼다는 응답이 3순위가 나의 시간이 생긴다는 것이었고 나의 또래 친구가 생긴다는 것이 4순위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면(〈표 12〉),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을 살펴보면 아이의 문제로 보육교사에게 주의를 받는 것이 힘들었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고, 까다로운 규칙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16.4%, 아이가 아플 때의 대응과 아이 문제가 아닌 일로 보육교사에게 주의를 받음이 공동으로 각각 1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각자가 선택한 1순위에서 3순위의 응답을 합하여 살펴보면 아이의 문제로 주의를 받음이 43명이었고 까다로운 규칙에 34명, 그리고 아이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육교사에게 주의를 받음이 29명, 아이가 아플 때 대응이 28명이었다. 특이점은 아이의 문제와 관계없이 보육교사로부터 주의를 받는 것에 총 71명이 반응을 하고 있어서 보육시설 이용이 안심하고 자립에 도움이 되지만 보육교사와의 관계성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어 청소년부모들에게 보육교사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 사회 안에서 그들의 생활을 지지해주는 전문적 역할로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인다. 한편 어린 부모라는 이유로 편견을 느껴서 힘든 경우는 전체를 다 합해도 9명이 반응을 한 점,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 시 양육에 대한 조언을 받음이 좋았다는 응답(19명)과 가벼운 육아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응답(11명)인 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어린이집 교사가 청소년부모에게 주는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보육지원과 함께 청소년부모들에게 육아 지원 및 양육 스킬을 알려줄 수 있는 어린이집 기능의 확립과 함께 고위험군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학대 및 방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크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역할의 전문화 할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자녀가 3세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가졌던 본인의 양육태도에 대한 질문이다. 총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유형은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구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하고, 3세와 3세 이상인 경우는 3세 시기에 맞추어 응답하거나 회상해서 응답하도록 요청하여 응답자는 102명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3〉, 〈표 14〉, 〈표 15〉, 〈표 16〉,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13〉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결과로 '아이들 간의 싸움에 대하여 본인이 가졌던 생각은 어디에 해당하나요?'이다. 71.6%가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하였으나 28.4%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동의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상처가 나도록 다쳐서 오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은 어디에 해당하나요?'이다. 결과는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연하다가 3.0%, 어쩔 수 없다는 43.1%, 받아들일 수 없다고 49%,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3.9%로 나타났다.

〈표 13〉 아이들간의 싸움에 대한 생각

분항	구분	빈도	퍼센트
아이들간의 싸움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당연하다	22	21.6
	어쩔 수 없다.	51	50.0
	받아들일 수 없다	25	24.5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4	3.9
계		102	100

〈표 14〉 상처가 나도록 다치는 것에 대한 생각

분항	구분	빈도	퍼센트
아이가 상처가 나도록 다쳐서 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당연하다	4	3.9
	어쩔 수 없다.	44	43.2
	받아들일 수 없다	50	49.0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4	3.9
계		102	100

〈표 15〉 또래 아이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분항	구분	빈도	퍼센트
아이가 또래의 아이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당연하다	8	7.8
	어쩔 수 없다.	23	22.6
	받아들일 수 없다	65	63.7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6	5.9
계		102	100

〈표 16〉 친구의 물건을 뺐는 것에 대한 생각

분항	구분	빈도	퍼센트
아이가 친구의 물건을 빼앗아 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당연하다	9	8.8
	어쩔 수 없다.	15	14.7
	받아들일 수 없다	72	70.6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6	5.9
계		102	100

〈표 17〉 설명을 해주어도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한 생각

분항	구분	빈도	퍼센트
설명을 해도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고 못 알아 들을 때에 드는 생각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당연하다	10	9.8
	어쩔 수 없다.	26	25.5
	받아들일 수 없다	62	60.8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4	3.9
계		102	100

〈표 15〉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7.8%가 당연하다고 하였고, 22.6%가 어쩔 수 없다고 하였으며, 63.7%가 받아들일 수 없다, 5.9%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30.4%가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한 반면에

14) 아이의 문제로 보육교사에게 주의를 받음

15) 아이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보육교사에게 주의를 받음

69.6%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아이가 친구의 물건을 빼앗는 행위에 대한 생각은 <표 16>을 보면 8.8%가 당연하다 14.7%가 어쩔 수 없다고 하여 23.5%가 당연하고나 어쩔 수 없다고 하였으며 70.6%는 받아들일 수 없다, 5.9%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17>은 설명을 해주어도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결과이다. 9.8%가 당연하다, 25.5%가 어쩔 수 없다, 60.8%는 받아들일 수 없다. 3.9%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10대에 출산한 응답자들이 3세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자녀를 양육하는 본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나는 내 자신이 좋다', '나를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나는 타인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 '나는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의 4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유형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의 구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하고, 3세와 3세 이상인 경우는 3세 시기에 맞추어 응답하거나 회상해서 응답하도록 요청하여 응답자는 102명이다. '나는 내 자신이 좋다'라는 문항의 결과(<표 18>)는 그렇다가 9.8%, 약간 그렇다가 45.1%, 별로 그렇지 않다가 21.6%, 그렇지 않다가 13.7%가 응답하였다.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합하면 과반수가 넘는 54.9%가 된다. <표 19>를 보면 '나를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에 그렇다가 9.8%, 약간 그렇다가 36.3%이고 별로 그렇지 않다가 32.3%, 그렇지 않다가 21.6%로 나타났다. '나는 타인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에 대하여 32.4가 그렇다에 61.8%가 약간 그렇다고 응답하여 총 94.2%가 이타행위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별로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는 3.9%와 1.9%로 나타났다. 나는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 문항의 결과인 <표 21>을 보면 그렇다가 42.2%, 약간 그렇다가 50%로 총 92.2%가 응답하였고 약간 그렇지 않다가 5.9%, 그렇지 않다가 1.9%가 응답하였다

<표 18> 자기자신에 대한 호감도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나는 내 자신이 좋다	그렇다	10	9.8
	약간 그렇다.	46	45.1
	별로 그렇지 않다	32	21.6
	그렇지 않다	14	13.7
	계	102	100

<표 19> 자기자신의 사회효능도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나를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그렇다	10	9.8
	약간 그렇다.	37	36.3
	별로 그렇지 않다	33	32.3
	그렇지 않다	22	21.6
	계	102	100

<표 20> 이타행위에 대한 의지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나는 타인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	그렇다	33	32.4
	약간 그렇다.	63	61.8
	별로 그렇지 않다	4	3.9
	그렇지 않다	2	1.9
계		102	100

<표 21> 사회적 이타행위에 대한 의지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나는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	그렇다	43	42.2
	약간 그렇다.	51	50.0
	별로 그렇지 않다	6	5.9
	그렇지 않다	2	1.9
계		102	100

이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유형을 1점에서 4점까지의 구간으로 연속척도화하여 점수로 계산하였을 때 그 점수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가 3.38점, 타인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가 3.28점, 나는 내 자신이 좋다가 2.82점, 나를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가 2.64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높지 않지만 응답자의 반정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응답자자의 대다수는 사회와 모르는 이들을 위해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명숙(2016)의 연구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혼모의 자녀양육경험을 어머니로서 삶의 버거움, 흔들리는 사회인으로서의 어머니, 당당한 어머니로서 모습추구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보인다.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와 본인에 대한 긍정성, 지향성 등을 볼 때 자녀양육의 초기에 꼭 필요한 정보와 적절한 지원이 자녀양육과 자립 등 사회인으로 사회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자립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임신 후 또는 출산 후에 직업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직업교육을 받을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직업교육은 취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결과는 <표 22>에 나타나 있다. 응답자 가운데 35.3%가 직업교육을 받았으나 62.7%는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 자신이 받은 직업교육을 모두 선택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그들 가운데 66%가 노동고용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 패키지프로그램을 다니고 있었고, 10%가 희망리본본부프로그램을 수강하였다고 하였다. 이 두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수강 시 조건부로 수급이 유지된다는 점이 있다. 16%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었다.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훈련 중의 생활비없음이 40.4%, 훈련 중 자녀 돌봄이 힘들었다는 것에 23.4%,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힘들었다가 17%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부족과 기초지식 부족, 체력과 건강 부족이 각각 4.3%, 2.1%, 6.4%였다. 직업교육의 기여정도에 대한 질문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30.6%, 약간 도움이 되었다가 30.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13명이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2명이 응답하였다. 이를 4점 척도화하여 점수로 환산하면 이들의 평균값은 2.86점으로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고 있다. 이들의 2/3정도가 받은 교육이 공적인 직업훈련인 것으로 판단 할 때, 한시적 수급의 유지를 위하여 신청하고 들었지만, 취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직업교육 경험이 없는 62.7%의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다. 학업유지중인 경우가 34.4%, 생활비부

족이 31.3%, 아이를 직접 돌보기 위해 18.6%로 나타났다. 앞에서 이들의 학력 수준에서도 나타나듯 최종학력이 중졸이 가장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학업을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자립을 준비하기에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과 아이를 돌봐야 하는 다중과업의 현실, 그리고 본인의 능력부족이 큰 어려움으로 판단된다.

응답자들에게 자립을 위하여 높은 학력이 필요한지, 희망하는 학력의 수준은 어떠한지,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주면 좋은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결과는 <표 23>에 나타나 있다. 자신의 자립을 위해서 지금보다 높은 학력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많이 필요함이 41.2%, 조금 필요함이 39.2%가 응답하여 전체의 80.4%가 학력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음은 17.6%, 전혀 필요없음은 1%가 응답하고 있다. 응답을 4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

<표 22> 직업훈련에 관한 질문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직업교육 경험	있다	36	35.3	직업교육 기관	공적인 직업훈련	2	4.0
	없다	64	62.7		직장연수	1	2.0
	계	102	100		온라인 강의	8	16
직업교육시 힘든 점	훈련중 생활비 없음	19	40.4	n=36 복수 응답	취업성공패키지	33	66
	교육비 부담	2	4.3		희망리본본부	5	10
	기초학력부족	3	6.4		기타	1	2.0
	기초지식부족	1	2.1		계	50	.
직업교육 n=36	적합한 프로그램 선택	8	17.0	직업교육 받지 않은 이유	훈련비용부담	1	1.5
	훈련중 자녀 돌봄	11	23.4		하루하루생활비부족	20	31.3
	자신의 체력부족	3	6.4		본인 양육 희망	19	18.6
	계	47	.		아이 맡길 곳 없음	1	1.5
직업교육 기여	도움이 많이 되었음	11	30.6	구직 활동 중	1	1.5	
	약간 도움이 되었음	11	30.6	학업 유지 중	22	34.4	
	별로 도움 되지 않았음	12	33.3	훈련내용 비호감	1	1.5	
	전혀 도움 되지 않았음	2	5.5	직업교육무관심	1	1.5	
	계	36	100	번거롭고 귀찮음	1	1.5	
				계	64	100	

<표 23> 자립을 위한 학력 취득에 대한 필요성 및 계획, 지원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문항	구분	빈도	퍼센트
높은 학력 필요 여부	많이 필요함	42	41.2	희망 학력 수준	고등학교졸업	39	38.2
	조금 필요함	40	39.2		전문대학졸업	5	4.9
	별로 필요하지 않음	18	17.6		대학교졸업	39	38.2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0		대학원 졸업	2	2.0
	무응답	1	1.0		무응답	17	16.7
향후 학업 계획	계	102	100	계	102	100	
	온라인교육	25	31.3	희망 하는 지원 내용 (복수응답)*	생활비지원	54	65.9
	대안학교	18	22.5		학비보조	11	13.4
	검정고시	30	37.5		자녀돌봄지원	22	26.8
	복학	1	1.3		학습지원	4	4.9
구체적인 방법 모름	2	2.5	기타		2	2.4	
				기타	2	2.4	

균점수는 3.2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높은 학력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학력 수준에 대하여 고등학교와 대학이 각각 졸업 38.2%로 같은 비율의 응답자였다. 계속해서 전문대 졸업 4.9%, 대학원 졸업은 2.0%가 응답하였고 무응답이 16.7%이다. 응답자의 3/4 정도가 학업을 지속하여 원하는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표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더 높은 학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37.5%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1.3%가 온라인 교육을 이용, 22.5%가 대안학교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전에 다녔던 학교에 복학한다는 대답은 1.3%에 불과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시간이나 금전적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접근하기 쉬운 교육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보다 높은 학력이 필요하다고 한 82명을 대상으로 더 높은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학업을 유지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2/3에 가까운 65.9%가 생활비 지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자녀 돌봄이 지원이 26.8%, 학비 보조로 13.4%, 학습지원(과외공부)은 4.9%의 순서로 희망하고 있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의 생활비와 학비, 자녀 돌봄은 필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우리나라는 저출산국으로서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출생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양육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의 지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설문조사는 10대에 자녀를 출산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들은 102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24세였으며, 아이를 출산할 때의 평균연령은 19세이고, 자녀의 평균연령은 5세였다. 그 당시 아이 아빠의 평균연령은 약 22세로 이들의 22.5%가 출산 당시 산모 옆에 있었다. 출산 직후 아이 아빠 집에서 생활한 경우는 16.6%였으나 아이가 3세경에는 11.1%로 감소하고 조사 실시한 시점에서는 아이 아빠, 혹은 생부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2.2%였다. 응답자의 평균 학력수준은 절반 정도가 중졸이었고, 90% 정도가 학교를 중퇴한 경험이 있었으며, 응답자의 40%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83.3%가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조사대상자들은 임신 인지 시기가 12주로 일반적인 산모의 초진시기가 6주 이내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늦은 것으로 산모와 아기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생부가 산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적었고, 파트너성이 점점 감소하여 의도치 않게 미혼모가 되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미혼모자기 본생활시설과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의 높은 이용을 통해 출산시설의 높은 의존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은 낮았다. 양육자체의 어려움을 제외한 다른 어려움에 대한 응답을 통해 아이 생부 또는 그의 가족과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장애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다양하고 크게 인식되고 있다. 아이의 존재는 비록 어릴지라도 응답자들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원가족과 친구도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었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일하고 육아를 하는데 어린이집의 이용은 전체 응답자의 71.6%로 나타났다. 대체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57.5%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고, 24.7%는 자신의 시간이 생기는 것이 좋은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보육교사로부터 주의를 받거나 까다로운 규칙으로 인해 힘들다고 하였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를 보면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편,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나 효능감은 높지 않으나 사회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자립과 관련하여 직업교육의 경험은 높지 않으며 생활비의 부족과 자녀 돌봄의 부재가 교육을 받을 때 힘든 점이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현재 학업중이거나 생활비 부족, 자녀양육의 이유로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립을 위하여 자신의 학력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학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비와 자녀 돌봄의 지원을 원한다.

이상의 결과는 이전 연구결과와는 차별되는 몇 가지로부터 논의의 점이 발견된다. 첫째, 임신인지시기가 평균 12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모의 평균보다 낮고 일반 산모에 비해 훨씬 늦은 것이다. 임신 인지 시기가 늦다는 것은 산전에 이루어지는 초진이 늦다는 것이며 산전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모성권, 재생산권을 넘어서서 태어나는 아기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응답자들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미혼한부모이지만 아기의 기형이나 미숙아 출산 등의 문제로 이루어지는 산모의 건강문제와 출산 후 의 아동학대를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산전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산전 임신기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아이 아빠의 부모됨, 또는 파트너성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출산 당시 함께 한 청소년인 부와 모는 함께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이유로 점차 자신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낳은 산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고찰이 필요하다. 사회의 인식 부족이 문제인지 그들의 경제력이 문제인지, 부모가 반대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부모에서 청소년미혼모로의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이며, 또한 청소년양부모가 함께 자

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미혼한부모의 경제활동과 자녀돌봄의 이중 과업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아동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셋째, 아이 생부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확인이 요구된다. 대다수의 경우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분일 것이지만 양육비에 대한 분담, 또는 아이 생부와 그의 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여부에서 비롯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넷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양육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는 것은 어린 미혼한부모들의 아이에 대한 양육 행동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행동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점이 보육교사에게 노출되었다는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과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양육의 구체적인 방법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을 확대, 유추해석을 하면 이들은 양육하는데 어렵고 부족한 것을 인지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괜찮은 사회인으로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린이집 교사와 같은 돌봄지원자는 지역 사회 안에서 가장 가까워서 만날 수 있는 양육 상담지원자의 역할과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가 기능과 더불어 원가족과 관계형성이 희박한 청소년부모들을 위한 육아 모델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이들의 평균 학력이 중졸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더 높은 학력을 원한다는 점, 비정규직이 많았다는 것이 확인 된 바, 자립을 위하여 직업교육과 학력 상상을 위한 교육 중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점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의 소지가 필요하고 국가자격 시험의 응시자격인 고등학교 졸업은 필수로 하는 전제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직업교육이나 학력 상상을 이루는 데 공통점은 둘 다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과업이고 또한 둘 다 그 기간 동안에 생활비지원과 아이 돌봄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섯째, 향후 국가의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부모를 크게 부모와 아동이라는 두 범주 중에서 아동의 권리, 아동복지 이념에 근거한 청소년부모의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교육, 주거, 법, 행정 등의 지원과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현재 지원형태인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평생교육지원관련 법 등 관련 법체계에서 이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의 지원정책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 양육초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직접 조사를 통해 탐색한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고 있으며, 비양

육자인 자녀의 생부의 역동을 함께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저출산의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의 과업에서 청소년 산모의 건강권을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개인, 사회가 함께 고민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 생부에 관한 사회의 무관심을 환기시키고 아이 생부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부모와 미혼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10대의 청소년으로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부모, 한부모들에 대해서는 가정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도입(박지윤, 2020)과 10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 및 양육프로그램이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포괄하는 가족정책의 수립과 가족자원과 지역자원을 적용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강기정·박수선(2013).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실천 경험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39-61.
- 2) 고선강(2014). 한부모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93-114.
- 3) 고선강(2015). 부모의 성별에 따른 한부모가계의 경제 자원 차인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4), 95-120.
- 4) 고선강(2018).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지출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1), 99-118.
- 5) 고선강·구혜령(2012). 한부모가계의 자산상태: 가구주의 성에 따른 차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0-61.
- 6) 김명희·변규란(2012). 한부모가족 대상의 사례관리 운영 현황-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19-133.
- 7) 김상훈·이재진·강승묵·김수아·박선영·박유리(2010). 여성 한부모가정의 경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0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60-260.
- 8) 김성연(2015). 미혼모의 시간빈곤 문제와 해결방안 모색.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5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28-132.
- 9) 김소영·정지영(2012). 한부모가족의 인적자원관리: 부모 자녀관계 및 심리·정서적 적응.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86-97.

- 10) 김외숙·박은정(2018).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의 성차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3), 1-19.
- 11) 김은지·장혜경·이미정·최인희·김혜영·여유진(2011). 청소년한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지원 방안 등 연구. 여성가족부.
- 12) 김지현·권미경·최윤경(2018).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V). 육아정책연구소, 2018(2), 78-79.
- 13) 김혜영·이미정·이택면·김은지·선보영·장연진(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14) 노정자·강기정(2012). 한부모 이혼 남성이 홀로서기과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45-163.
- 15) 대한민국국회 (202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Y0R0W8Y1K8V1Q3S5L4M5E2Z3Y9Z4에서 2021.02.02. 인출
- 16) 대한민국국회 (2021)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D0Y0H9Z1D8D1E3D4G3B4P8J8F4V2에서 2021.02.02. 인출
- 17) 박단비(2016). 다문화·한부모여성의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78-178.
- 18) 박수선·강기정·손서희(2012).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실천 경험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48-168.
- 19) 박정윤·원아름(2014).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121-141.
- 20) 박주희 (2016).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 및 정서적 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 1-22.
- 21) 박지윤(2020). 10대에 출산한 여성의 양육과 자립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한·일 비교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제21대 국회의 젠더입법과제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 포럼 자료집, 61-75.
- 22) 베이비뉴스(2020.09.11) 작년 국외입양 100% ‘미혼모 아동’.. 국가는 어디 있나.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92>.
- 23) 변수정(2020). “미성년 미혼모의 건강과 양육지원”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자료집, 41-53.
- 24) 보건복지부(2020a).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25) 보건복지부(2020b) 보호대상 아동현황보고.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0.11.20. 인출
- 26) 보건복지부(2020c) 보호대상 아동현황보고, 입양아 수 및 입양비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에서 2020.11.20. 인출
- 27) 서지원(2013).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의 삶의 질에 대한 효과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03-124.
- 28) 서지원·차성란(2012).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관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62-85.
- 29) 시사위크(2020), 어린이 행복권 톨아보기⑨ 사망으로 치달은 아동학대 ... 이렇게 달랐다. <http://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37895>에서 2020.10.02. 인출
- 30) 신윤정·이상립·김윤희(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2),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1) 신정희(2011). 청소년임신에 따른 임신부와 신생아의 주산기 문제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2) 심영란(2002). 미혼모의 육구와 복지적 서비스에 관한 연구: 시설내의 미혼모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3) 안경천·이영호·박단비(201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자요구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85-285.
- 34) 여성가족부(2020).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35) 윤소영(2013).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과 여가실태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18.
- 36) 윤소영·이현아(2012). 한부모가족의 시간배분과 여가활동 실태분석-한부모가족의 행복한생활을 위한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1-49.
- 37) 이복실(2012). 한부모가족지원 정책현황 및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10.
- 38) 이영호(2012). 한부모가족의 이슈와 가족자원경영학에서의 연구, 교육 및 실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3-27.
- 39) 이영호(2014). 청소년 한부모 양육 지원 서비스 실천사례-생활자립을 위한 사각지대의 해소 방안 모색. 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 청소년 한부모양육 지원을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27-54.
- 40) 이영호(2015). 한부모가족의 시간빈곤 해결을 위한 전략과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5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57-168.
- 41) 이영호(2020).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자녀양육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자료집, 13-33.
- 42) 이영호·김성연·이예슬(2020). 주거대출 연계사업을 통해 본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주거실태와 생활변화. 한국가

- 족자원경영학회 2020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8-208.
- 43) 이영호 · 장명선(2019). 중노년기 여성한부모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7-82.
- 44) 이윤정 (2019). 청소년한부모의 일과 삶의 실태와 현실: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직업교육 경험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3), 89-107.
- 45) 장명선 · 이영호(2016).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요구와 방안 모색.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2), 141-163.
- 46) 장명선 · 이창순(2012).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개선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98-115.
- 47) 통계청(2019).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48)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49) 허명숙(2016).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미혼모의 자녀양육 경험.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0) 허민숙(2020). 우리시대 사각지대 청소년: 자녀양육 청소년부모(부부),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자료집, 1-12.
- 51) 森田 明美(2014), 일본 청소년 양육모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연구의 구조. 서울시 한부모지원센터 청소년 한부모양육 지원을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55-64.
- 52) 上田 美香(2014), 청소년 양육가정의 임신기부터 복지지원에 관한 연구-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적조사 구조와 조사결과. 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 청소년 한부모양육 지원을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65-78.
- 53) Berthoud, R. & Robson, K. (2001). The Outcome of Teenage Motherhood in Europe. Innocenti, Working Paper No.86. Florence: UNICEF.

- 투 고 일 : 2020년 12월 15일
- 심 사 일 : 2021년 01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02월 22일